

덴마크가 바라본 세계의 돼지고기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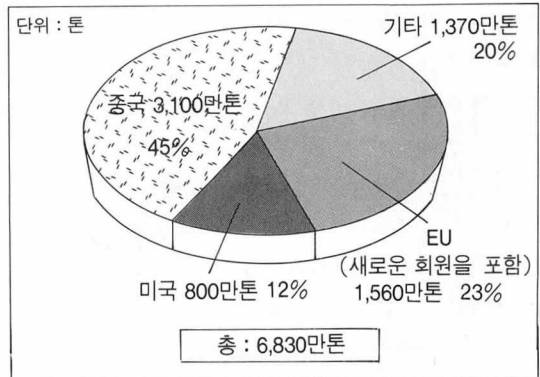
제스퍼 비베 한센 (덴마크 돈육생산 및 도축업조합)

1. 세계 돈육시장의 전망

현재 세계 주요 돈육 생산국의 생산량은 약 7천만톤이 된다.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5%이고, EU가 23%이다. 또한 미국은 1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국가들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이 20% 중 구소련이 6.5%, 동유럽이 5.8%, 캐나다가 1.8%이고, 우리의 주경쟁국인 대만이 1.7%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산국 중 어떤 기관이나 연구소도 공식적인 예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돈육 총생산량이 현재의 7천만톤에서 8~9천만톤으로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타당하다고 믿는다. 국가별, 지역별 생산 비율은 예측하기가 더욱 불가능하지만, 중국의 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증가함에 따라, 비율도 높아질 것이다. 한편, 다른 국가들은 절대 생산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떨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세계 돈육무역은 생산량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었다. 현재는 230만톤으로서 생산



〈그림1〉 1994년의 세계 돈육 생산 현황

량의 3.6~4% 정도에 불과하다. 1993~1994년부터 증가한 무역 실적은 동유럽과 러시아의 수입 증가가 그 원인이다. 1995년이 되자 이러한 특별한 수요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2000년이 되면 교역량은 3백만 톤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생산량의 3.5% 정도로, 예전과 같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표 1〉은 세계 돈육거래의 주역들을 소개하고 있다. 가장 큰 수출 지역은 EU이며, 덴마크는 이 중의 65~70%를 차지하고 있다. 1994년 EU의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 동유럽, 미국,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의 몇개국이다. 캐나다는 주로 미국과 극동 아시아에 수출을 한다. 미국의 수출국은 주로 일본과 중앙 아메리카이며, 중국의 수출은 거의 전적으로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대만은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한다. 마지막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주수출국은 구소련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이다.

수입면에서 보면, 일본이 개별 국가로는 가장 큰 수입국이지만,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들도 최근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주요 수입국임과 동시에 수출국이기도 하다. 또한, EU는 103%~105%의 높은 자급률로 수입은 미미한 편이다.

1995년은 EU의 동유럽 및 미국의 수출감소로 세계 전체 돈육거래가 감소한 해였다. 주요 수출입지역 및 국가의 순거래량 추이에 대한 예측은 EU와 캐나다의 순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994년도까지 주요 수입국이었지만 수출국으로 그 무역 패턴을 바꿀 것이다. 동유럽, 구소련, 남미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다. 현재의 수입 지역 및 국가들은 앞으로도 중요한 수입국의 자리를 유지하거나, 또는 더욱 방대한 수입국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입국이 나타날 전망이다.

앞서 말한대로, 멕시코, 베네주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은 잠재력있는 수입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중요한 수입국이 되기 시작했으며,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과 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국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은 아직 WTO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다. 중국은 인구도 엄청나고 그에 못지않게 생산 또한 엄청나긴 하지만, 러시아처럼 자유 경제의 사유재산이 증가하고,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되면 소비량이 증가하여 수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표1〉 돈육 수출입 국가 및 지역의 순거래량(1994년)

단위 : Tonnes cwe

수출국가/지역	거래량	수입국가/지역	거래량
EU(유럽)	1038	일본	676
캐나다	298	러시아와 동유럽	690
중국	377	미국	377
대만	331	홍콩	267
미국	242	다른 동유럽	202
동유럽	139	중앙아메리카	119
다른 먼 동유럽	110	캐나다	35
다른 서유럽	40	EU(유럽)	23
기타	63	기타	289
총계	2638	총계	2638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수입국이 될 수도 있지만, 일인당 돈육수요가 낮기 때문에 수입도 극히 적은 양이 될 것이다.

2. 덴마크 돈육업계의 구조

현재 세계 돈육거래에서 덴마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또한, 덴마크는 EU의 돈육 수출 중 65~70%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회원국으로서, 현 EU의 법률때문에 덴마크는 세계 시장에서 다른 경쟁국들보다 더 많은 사료비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줄로 안다. 그러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덴마크의 사료비와 국제 시장의 사료비 차이는 점점 적어지고 있고, 따라서 경쟁에서 불리했던 그 문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세계 곡물시장의 상황은 다음 영업년도에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곡물시장을 근거로 경쟁 가격을 예상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그렇지만, 유럽 곡물가격을 낮추도록 한, 1992년에 개정된 일반 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에 비추어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유럽 농업 정책에 대한 또 한번의 개정으로 유럽 곡물 가격을 국제 시장 수준으로 완전히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쟁에서 불리한 이 가격 측면을 완전

히 극복할 수도 있다.

물론, 돈육을 수출하는 데 있어 가격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격이 유일한 마케팅 요소는 아니다. 품질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것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점점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수출업자로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덴마크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유럽의 수의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EU의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덴마크는 수년동안 세계 고급품시장의 수의학 및 위생요건을 충족시켜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은 품질향상 및 유지를 위한 다른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덴마크 돈육업계의 집중적인 통합경영 구조로써 전 업계에 통일된 품질 및 식품안전 규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된다. 이 분야에 대한 밀접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전국 '품질 보증 계획'(Quality Assurance Scheme)이 마련되어 품질과 식품안전의 세세한 부분까지 문서로 작성하였다.

덴마크의 돈육 업계는 미생물, 화학 잔류물, 기타 신체적 위험 등 돼지 고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료비, 품질, 식품 안전보증 등 뿐만 아니라 덴마크 돈육업계의 높은 경쟁력은 1차생산 과정에서 도축, 절단 및 유통 과정중의 여러가지 다른 요소에 기인하고 있다.

1차 생산을 고려해 볼 때, 덴마크 돈육 생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생산성이 높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와 기타 돈육 생산국들 사이의 중요한 생산 수치들을 <표2>에서 비교해 보겠다. 연간 암돼지 한마리당 출산하는 돼지수로 보면 다른 나라들과 그리 큰 차이는 없어보이지만,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우위는 또한 사료 요구율(feed conversion) 및 일당증체량(daily gain)에서도 나타난

<표2> 돈육 생산국사이의 중요한 생산수치 비교(1994/95년)

생산지표	나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연간 모돈 1두당 자돈생산두수	21,7	21,3	21,5	18,5
사료요구량(kg/일)	2,93	3,05	2,75	3,40
일당 증체량(g)	744	715	620	700

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들로부터 다른 나라들의 생산 원가를 정확히 평가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생산성에 대한 수치와 생산 원가는 다른 방식으로 계산되며 또 농장 건물값, 이자율, 인건비 등 정확한 비교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 또한, 각각 다른 정부 보조, 환경적 설비, 동물 복지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주요 돈육생산국들의 1차 생산성과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덴마크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경쟁국들, 특히 미국보다 연간 암돼지 한마리당 출산 돼지수를 증가시키고, 사료 요구율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도축, 절단, 가공과정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 동안 덴마크 업체는 큰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도축 회사의 수는 54개에서 4개로 줄었는데, 이 이유는 계속된 합병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축된 돼지의 총 수는 같은 기간동안 1천 1백만 마리에서 2천만 마리로 증가하였다. 도축장의 설비와 공정공장의 90% 이상이 이 4개 도축 회사 소유이다. 절단, 가공, 마케팅은 이 4개의 도축 회사의 구조에 합병되어 있다. 덴마크의 도축, 절단 가공 업계의 총체적 구조 개선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되었다.

3. 미래 국제 돈육시장에서 덴마크의 역할

덴마크의 현재 곡물 생산수준으로 보아 이론

적으로는 현재 연간 2천만 마리에서 3천만마리로 생산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환경과 규제들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은 2천 3백만에서 2천 5백만마리가 최대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연간 2천 3백만 마리의 생산수치를 토대로 덴마크의 수출량을 추정하였다. 이정도 규모의 생산이라면 2000년에는 140만 톤의 수출이 가능하다.

앞에서 미래 시장 동향을 예측하였다. 요약하면, 2000년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대한 덴마크의 수출량이 더 커질 것이다. 이유는 유럽 시장, 특히 유럽 최대의 돈육 시장인 독일이 가깝기 때문이다. 독일은 생산량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더구나, 새로운 EU 회원국들인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시장을 보면, 독일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는 자급 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덜 중요해질 것이다. 영국으로의 수출량은 일정하되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태리로의 수출 비율은 높아질 것 같다. 기타 EU 회원국 및 새로 회원이 된 국가들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유럽 연합 이외의 시장을 살펴보면, 미국은 자국내 생산자들과의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덴마크의 비율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본은 생산량이 줄기 때문에, 덴마크가 수출하는 양은 증가하나, 비율은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일본의 보호정책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제하에 나온 예측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의 수입단속 정책으로 덴마크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한국 시장을 살펴보면, 1997년 7월 1일 이후 수입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른 제3국가에 대해서는 약간 불분명하다. 1993년부터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1995년이 되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다.

물론, 여태까지의 수치에는 많은 변수가 있다. 그러나, 총 수출량 140만톤에 이르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생산 증가분을 수출로 잇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덴마크 국민들의 1인당 연간 돈육 소비가 70킬로그램으로 더 이상의 증가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수출할 양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이제는 어떤 제품을 수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 이번에도 역시 예측이다.

원료육인 지육과 지방, 껍질, 뼈가 포함되어 있는 절단육의 수출은 증가하면서 총수출량 중 일정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본다. 1995년의 증가는 러시아와 몇몇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생고기 수출에 따른 것이다. 예상하기로 베이컨 수출량은 변동이 거의 없을 것 같다. 베이컨과 돈육의 대영국 수출은 그 양에서 거의 일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에 생각할 제품은 원료육을 일부 가공한 정육이다. 이 말은 규격화되고, 지방과 껍질을 제거한 뼈를 바른 고기, 즉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부위별로 절단된 정육이다. 예를 들면, 등심, 목살, 삼겹살 등이 이것이야말로 품질과 규격을 조화시킨, 덴마크가 수출 시장에서 성공해 온 분야이다. 부산물은 총체적인 생산의 증감을 따르기 때문에 그 비율은 일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지만, 비율로는 감소할 것이다. 덴마크의 생고기가 가공품으로 생산되어 수출될 수도 있지만 가공 제품에 대한 덴마크내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출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